

[성주간] 주님수난 성금요일 주님수난예식

## 수난복음

(사제) 요한 18, 1 - 19, 42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기입니다.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리스도) (해설자)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 답 하 였 다. ["나 자 렷 사 람 예 수 요."] 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 셴 다.

(그리스도) (해설자)  
["나 - 다."] 예 수 님 을 팔 아 념 길 유 다 도 그 들 과 함 께 서 있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나 - 다" 하 실 때, 그 들 은 뒤 걸 음 치 다 가 땅 에 념 어 졌 다.

(그리스도) (해설자)  
예 수 님 께 서 다 시 물 으 셴 다. ["누 구 를 찾 느 냐?"] 그 들 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 답 하 였 다. ["나 자 렷 사 람 예 수 요."] 예 수 님 께 서 말 씀

(그리스도)  
하 셴 다. ["나 다. 하 지 않 았 느 냐? 너 희 가 나 를 찾 는 다 면 이 사 람

(해설자)  
들 은 가 게 내 버 려 두 어 라."] 이 는 "아 버 지 께 서 저 에 게 주 신 사 람

들 가 운 데 하 나 도 앓 지 않 았 습 니 다." 하 고 당 신 께 서 전 에 하 신 말 씀

이 이 루 어 지 게 하 려 는 것 이 었 다. 그 때 에 시 몬 베 드 로 가 가 지



고 있던 칼을 뽑아, 대 사 제 의 종 을 내 리 쳐 오 른 쪽 귀 를 잘 라 버 렸 다.



그 종 의 이 름 은 말 코 스 였 다. 그 러 자 예 수 님 께 서 베 드 로 에 게



이 르 션 다. ["그 칼 을 칼 집 에 꽂 아 라. 아 버 지 께 서



나 에 게 주 신 이 잔 을 내 가 마 셔 야 하 지 않 겠 느 냐?"]



군 대 와 그 대 장 과 유 다 인 들 의 성 전 경 비 병 들 은 예 수 님 을 붙 잡 아 결



박 하 고, 먼 저 한 나 스 에 게 데 려 갔 다. 한 나 스 는 그 해 의 대 사 제



카 야 파 의 장 인 이 었 다. 카 야 파 는 백 성 을 위 하 여 한 사 람 이 죽 는 것 이



낫 다 고 유 다 인 들 에 게 충 고 한 자 다. 시 몬 베 드 로 와 또 다 른 제



자 하 나 가 예 수 님 을 따 라 갔 다. 그 제 자 는 대 사 제 와 아 는 사 이 여 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묻지기 하



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그 묻지기 하



(다른사람)

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해설자)

(다른사람)

(해설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



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솥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쪼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쪼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하



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에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 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 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



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



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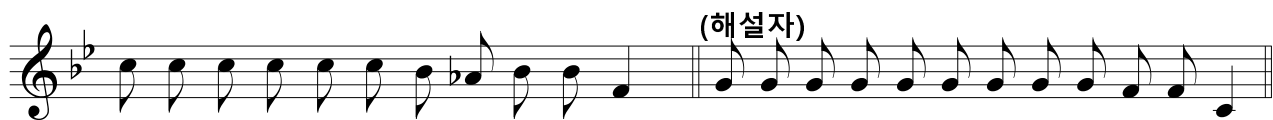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 었 다. ["무슨 일로 저 사 람 을 고 소 하 는 것 이오?"] 그 들 이 빌 라



도 에 게 대 답 하 였 다. ["저자 가 범 죄 자 가 아 니 라 면 우 리 가 총



독 께 넘 기 지 않 았 을 것 이오."]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말 하 였 다.



["여러 분 이 데 리 고 가 서 여 러 분 의 법 대 로 재 판 하 시오."]



그 러 자 유 다 인 들 이 말 하 였 다. ["우 리 는 누 구 를 죽 일 권 한 이 없소."]



이 는 예 수 님 께 서 당 신 이 어 땡 게 죽 임 을 당 할 것 인 지 가 리 키 며 하 신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그리 된 것 이 다. 그리 하 여 빌 라 도 가 다시



총 독 관 저 안 으 로 들 어 가 예 수 님 을 불 러 물 었 다. ["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되 물 으 셸 다. ["그 것 은 네 생 각



으로 하는 말 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 나에 관 하여 너에게 말 해 준



것 이냐?"] 빌 라 도 가 다시 물 었 다. ["나 야 유 다 인 이 아 니 잠 소



당 신 의 동 족 과 수 석 사 제 들 이 당 신 을 나 에 게 넘 긴 것 이 오.



당 신 은 무 슌 일 을 저 질 렸 소?"]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셸 다.



["내 나 라는 이 세 상 에 속 하 지 않 는 다. 내 나 라 가 이 세 상 에 속 한 다 면,



내 신 하 들 이 싸 워 내 가 유 다 인 들 에 게 넘 어 가 지 않 게 하 였 을 것 이 다.



그 러 나 내 나 라는 여 기 에 속 하 지 않 는 다." ] 빌 라 도 가 물 었 다.



["아 무 튼 당 신 이 임 금 이 라는 말 아 니 오?" ]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셸 다.



["내 가 임 금 이 라 고 네 가 말 하 고 있 다. 나 는 진 리 를 증 언 하 려 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해설자)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



(다른사람)

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



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



(해설자)

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다른사람)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소."]



(해설자)

바라빠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 다 인 들 의



임 금 님, 만 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 오, 내 가



저 사람을 여러분앞으로 데리고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 몫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예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



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



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서는 아



무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하지않을작정 이오? 나는당신을풀어줄권한도있고



당신을십자가에못박을권한도있다는것을모르시오?"]



예수님께서대답하셨습니다. ["네가위로부터받지않았으면



나에대해아무런권한도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나를



너에게넘긴자의죄가더크다."] 그때부터빌라도는예수



님을풀어줄방도를찾았다. 그러나유다인들은외쳤다.



["그사람을풀어주면 총독께서는황제의친구가아니오.



누구든지자기가임금이라고자처하는자는 황제에게대항하



는것 이 오."] 빌라도는이말을듣고예수님을밖으로데리고



나 가 리 토스 트 로 토스 라 고 하 는 곳 에 있 는 재 판 석 에 앉 았 다.



리 토스 트 로 토스 는 히 브 리 말 로 가 빠 타 라 고 한 다. 그 날 은 파 스 카 축



제 준 비 일 이 었 고 때 는 낮 열 두 시 쯤 이 었 다. 빌 라 도 가 유 다 인



(다른사람)

들 에 게 말 하 였 다. ["보 시 오, 여 러 분 의 임 금 이 오."]



(해설자)

(회중)

그 러 자 유 다 인 들 이 외 쳤 다. ["없 애 버 리 시 오. 없 애 버 리 시 오.



(해설자)

그 를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 ]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



(다른사람)

(해설자)

["여 러 분 의 임 금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라 는 말 이오?"] 수 석 사 제 들 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 답 하 였 다. ["우 리 임 - 금 은 황 제 뿐 이 오."] 그 리 하 여



빌 라 도 는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라 고 그 들 에 게 넘 겨 주 었



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



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



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



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기도 성에



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 래 서 유 다 인 들 의 수 석 사 제 들 이 빌 라 도 에 게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라 고 쓸 것 이 아 니 라, '나 는 유 다 인 들 의



(해설자)

임 금 이 다.하 고 저 자 가 말 하 였 다 고 쓰 시 오."] 빌 라 도 가 대 답



(다른사람)

(해설자)

하 였 다. ["내 가 한 번 썼 으 면 그 만 이 오."] 군 사 들 은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고 나 서, 그 분 의 옷 을 가 저 다 가 네 뭉 으 로 나 누 어



저 마 다 한 뭉 썩 차 지 하 였 다. 속 옷 도 가 저 갔 는 데 그 것 은 솔 기



가 없 이 위 에 서 부 터 통 으 로 찢 것 이 었 다. 그 래 서 그 들 은 서 로 말



(다른사람)

하 였 다. ["이 것 은 찢 지 말 고 누 구 차 지 가 될 지 제 비 를 뽑 자."]



(해설자)

"그 들 이 제 옷 을 저 희 끼 리 나 누 어 가 지 고 제 속 옷 을 놓 고 서 는



제 비 를 뽑 았 습 니 다." 하 신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그



리 된 것 이 다. 그 래 서 군 사 들 이 그 령 게 하 였 다. 예 수 님 의 십 자



가 곁 에 는 그 분 의 어 머 니 와 이 모, 클 로 파 스 의 아 내 마 리 아 와



마 리 아 막 달 레 나 가 서 있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는 당 신 의 어 머 니 와



그 곁 에 선 사 랑 하 시 는 제 자 를 보 시 고, 어 머 니 에 게 말 씀 하 셸 다.



["여 인 이 시 여, 이 사 람 이 어 머 니 의 아 들 입 니 다."] 이 어 서 그 제 자



에 게 말 씀 하 셸 다. ["이 분 이 네 어 머 니 시 다."] 그 때 부 터 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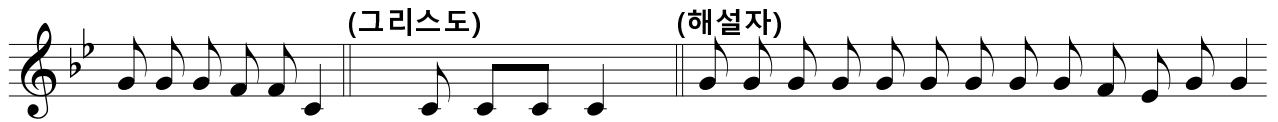


자 가 그 분 을 자 기 집 에 모 셸 다. 그 뒤 에 이 미 모 든 일 이 다 이 루



어 졌 음 을 아 신 예 수 님 께 서 는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게 하 시 려





고 말씀 하 셴 다. ["목 마 르 다."] 거 기 에 는 신 포 도 주 가 가 득 담 긴



그릇 이 놓 여 있 었 다. 그 래 서 사 람 들 이 신 포 도 주 를 듬 썩 적



신 해 면 을 우 슬 초 가 지 에 꽃 아 예 수 님 의 입 에 갓 다 대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는 신 포 도 주 를 드 신 다 음 에 말 씀 하 셴 다.



["다 이 루 어 졌 다."] 이 어 서 고 개 를 숙 이 시 며 숨 을 거 두 셴 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그 날 은 준 비 일 이 었 고 이 틀 날 안 식 일 은 큰 축 일 이 었 으 므 로,



유 다 인 들 은 안 식 일 에 시 신 이 십 자 가 에 매 달 려 있 지 않 게 하 려 고,



십 자 가 에 못 박 힌 이 들 의 다 리 를 부 러 뜨 리 고 시 신 을 치 우 게 하 라 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



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



러 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



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



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



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



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



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



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리트



라 짚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에 는 아 직 아 무 도 문 헌 적 이 없 는 새 무 덤 이 있 었 다. 그 날 은 유



다 인 들 의 준 비 일 이 었 고 또 무 덤 이 가 까 이 있 었 으 므 - 로, 그



들 은 예 수 님 을 그 곳 에 모 셸 - 다.



주 님 의 말 씀 입 - 니 다. 그 리 스 도 - 님 찬 미 - 합 니 다.